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의장 신년 인터뷰

“KTX·U대회·亞전당 개관 역량 집중”

“소통·화합으로 신뢰받는 의정 실현”

조영표 시의회의장

조영표(53·광주 남구 1) 광주시의회 의장은 29일 “올해는 당면한 지역 현안인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철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지역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돼 광주 발전의 기틀이 되도록 앞장설 것”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특히 최근 불거진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논란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시의회 성명서 발표, 호남광역의회 의장단 성명서 발표하고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면서 “애초 계획대로 호남고속철도가 운행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호남권 시·도의회와 협조하고 청와대 피켓시위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해 지난 10년간 개통만을 기다려온 우리 시민들의 바람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광주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운영되는 문화중심도시로, 자동차 생산기지 등 일자리가 생겨나는 도시로,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 개최로



KTX 서대전 경유 강력대응 8개기관 인사청문 책임 막중

활기찬 국제도시가 되어야 한다”면서 “광주 미래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개월간의 제7대회 의회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최대 현안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와 인사청문회 실시에 시민들의 공론을 결집시켜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자평했다.

조 의장은 민선 6기 광주시정에 대해서는 “윤장현 시장이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 제시와 함께 행정 초보라는 우려를 씻고 오히려 국비 확보를 전년보다 6% 더하는 등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다만, 시의회와 소통문제를 비롯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및 수영선수권 선수촌 분산 건립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재검토 논란, 산하기관에 대한 측근·정실 인사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시와 합의한 산하기관 인사청문회와 관련, “공사·공단 4개 기관과 출자·출연기관 4개 등 총 8개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청문 대상 기관”이라며 “의회와 청문회를 주관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도덕성과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이 조직과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의원들과 시민의 뜻을 모아 광주시와 협의를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명현관 도의회의장

29일 의정실에서 만난 명현관(53·해남 1) 전남도의회 의장의 표정은 시종일관 밝았다. 민감한 사안인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문제를 이낙연 지사와 매끄럽게 풀어낸데다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시의회와 전북도의회와 발빠르게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출범 7개월만에 상당한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현안 해결에 대한 자신감도 묻어났다. 5년 전부터 자신이 공을 들인 공무원 복지포인트 제도 개선안도 최근 반영시켰다. 명 의장 덕분에 앞으로 전남도청 공무원들은 전체 복지포인트 절반 이내에서 서류 구입이나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항상 의정실이 북적거린다고 말문을 열자 “문턱을 가능한 낮추고 싶었다. 지사를 만나지 못한 민원인들이 의정실로 몰려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었는데, 최근 소문이 좀 났나보다(웃음). 의정을 말할 때 스스로 다짐했던 것이나 자신이 아니라 도민을 돌보는 것이었고, 그것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잠을 거의 못자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피곤함을 못느꼈다”고 답변했다.



공무원복지제도 개선 성과 일자리 창출 등 조례 제정

민선 6기 전남도의회 출범 7개월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실속’을 강조했다. “요란하기보다는 알차게, 전남도와 소통

과 대화를 하면서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세웠고 상당부분 이를 지켰다고 본다. 도민의 대표이자 참된 일꾼으로, 전남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게 마련. 명 의장은 “숙원사업이나 불면사항 등 많은 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모두 해결하지 못했다. 대부분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라 심사속고하고, 집행부와 많은 협의를 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나 법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모든 역량을 다해 도민들의 이해를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올해 전남도의회 운영 방안에 대해 ‘소통과 화합’을 통한 신뢰받는 의회 실현에 두겠다고 설명했다. “숙원사업 해결과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지원 조례를 제정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도청과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면서, 연구하는 의원, 일하는 의회상을 정착시켜 나가겠다. 또 행정의 시비는 확실하게 가리고, 소통하고 화합하겠다. 의원들이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전문성도 갖춰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농어촌공사 지역인재 채용 부풀려 보도”

황주홍 의원 지적

나주로 이전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역인재 채용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작년에 5급 신입사원 105명 가운데 16명을 광주·전남지역 인재로 채용했다.

공사는 이에 대해 작년 말 보도자료를 배포, 이전 후 시행한 첫 공채에서 광주·



전남지역 인재를 15%나 뽑은 것이라며,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0년엔 전남 출신 신규채용이 19명, 2012년 21명으로 예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이라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다만, 지난 2013년엔 15명이었던 것에서 불과 1명 늘어난 데 그쳤다.

비율로 보더라도 2010년 20.7%(19명/92명)보다 5.5%포인트, 2012년 17.9%(21명/117명)보다 2.7%포인트 각각 감소했으며, 2013년 13.8%(15명/109명)보다는 불과 1.4% 늘었을 뿐이다.

황 의원은 “예년보다 줄었거나, 많이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큰 실적이거나 되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사실을 속이고 국민을 눈가림하는 것”이라며 “지방 이전 취지대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北 영변 5MW급 원자로 재가동 초기단계”

美 민간연구소 분석

북한 영변 핵단지에 위치한 5MW급 가스 흑연 원자로가 재가동 초기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미국 민간연구소가 분석했다.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전문 웹

사이트인 ‘38노스’는 상업용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작년 8월 말에서 12월 중순까지 5개월 가동이 중단됐던 이 원자로에서 최근 새로운 활동이 포착됐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38노스는 다만 “단지 수주간에 걸쳐 관찰된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5MW

원자로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 보인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동향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38노스는 작년 12월24일부터 올해 1월 11일 사이에 새로운 활동이 포착됐으며 “지난 5개월간 가동중단 이후 플루토늄 생산 원자료를 재가동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협뉴스

“4대강 사업으로 금융위기 극복” 자화자찬

MB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비사 소개

“북, 천안함 사과 댓가 쌀 50만t 요구해”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미 쇠고기 수입, 세종시 수정안 추진, 자원외교 등 재임시 각종 현안에 대한 비사를 비교적 소상히 소개했다.

다음은 회고록의 주요 내용이다.

◇최고기 수입과 광우병 괴담=대통령 취임을 1주일 앞둔 2008년 2월18일, 청와대 관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마주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부시 대통령과 수차례 약속한 결과 알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중 처리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노 대통령은 미국과 약속했다. “점점 시인하면서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다고 미국 의회가 FTA(자유무역협정)를 처리해준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결국, 나는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하여 큰 딜레마를 안고 대통령에 취임

해야 했다.

◇세종시 수정안=언론이 ‘정운찬, 세종시 수정안 추진’이라고 보도한 뒤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한나라당 비주류’의 반응은 싸늘했다. 전혀 근거 없는 추론이었지만, 내가 세종시 수정을 고리로 정운찬 총리 후보자를 2012년 여당의 대선후보로 내세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심을 사게 됐다. 돌이켜보면 당시 여론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표 측이 끝까지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한 이유도 이와 전혀 무관치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남북 접촉=북한은 2009년 8월23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조문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김기남 당시 북한 노동당 비서 등 조문단이 청와대를 예방했을 때 정성희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이 정상회담의

대가를 쌀과 비료 등 상당량의 경제 지원을 요구해 거절했다. 그해 11월 통일부와 통일전선부 간 실무접촉에서 북한이 “임(태희) 장관이 합의한 옥수수 10만t과 쌀 40만t, 비료 30만t, 아스팔트 건설용 피치 1억달타 어치, 북측의 국가개발은행 설립 자본금 100억달러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해 회담은 무산됐다.

천안함 폭침 이후인 2010년 7월에도 국정원의 고위급 인사가 방북했을 때 북측은 “동쪽쪽으로는 유감이라 생각한다”면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위해선 쌀 50만t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4대강 사업=세계 금융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우리가 신속히 4대강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을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국이 세계 금융위기를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빨리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동산 담보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Includes details on interest rates, loan amoun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BGS Finance.